

새만금사업 내부개발 속도 낸다

김일재 행정부지사 현장방문 추진상황 점검... “국가예산 확보 만전” 약속

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(사진)는 8일 새만금 사업지역인 배후도시용지의 새만금 바이오 에너지립을 비롯하여 농업용지 5공구, 환경생태용지 등 새만금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.



발 방안에 대해 해답을 찾기 위해서다. 새만금 배후도시용지에 있는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의 새만금 바이오 에너지립은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국비(100%)로 포플러 나무 150ha(기반조성 158ha)를 조성하는 곳 목재 집 및 목재 펄링 등을 생산하여 석유나 석탄 대신 연료로 생산하는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. 또한,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인근에 위치한 농업용지 5공구는 2013년 6월 착공(1.513ha)하여 현재 공정률 85%로 7개 농업용지 중 첫 번째로 올해

말에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곳이다. 농업용지 5공구 조성이 완료되면 농업특화단지, 첨단농업 시험단지, 첨단수출 원예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.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농업특화단지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. 새만금의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생태용지는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인근의 농업용지 7공구 초입부에 1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80ha를 조성하는 새만금생태환경용지에 방문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“기반 및 실시설계가 7

월에 승인되어 이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면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추진을 위해 충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마지막으로 방문한 새만금박물관은 부안군 새만금홍보관 인근(서측)에 5.6ha 규모 306억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기반 및 실시 설계용역과 박물관 전시실계 및 제작설치용역이 추진되어 있으며 2018년 공사 착공 후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앞두고 있어 박물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는 등 무더운 여름에도 김일재 행정부지사의 새만금사업 조속한 개발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.

/김진성 기자

전북 페이스북 인기 ‘엄지 척’

팬 수 15만명 돌파... SNS 소통강자 부상

전라북도 공식 페이스북(www.facebook.com/jeonbuk.kr)이 팬 수 15만 명을 넘어선다. 전국 지자체 SNS의 소통강자로 떠오르고 있다. 전라북도의 페이스북 팬 수는 15만7695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, 대구, 부산에 이어 전국 4위에 랭크됐으며, 이용자 반응 지수, 게시물 공유 등의 평가 항목에서도 최상위권에 랭크됐다고 8일 밝혔다.

페이스북 페이지 영향력평가 및 방문자 행동분석서비스 업체인 빅풋(BigFoot9)은 최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페이스북 운영 성과 비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. 이에 따르면 전북도 페이스북 팬 수는 15만7695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(30만3240명), 대구(17만4460), 부산(16만1191)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.

특히 전북도는 팬 수 외의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‘SNS 소통 강자’의 면모를 과시했다. 콘텐츠 행동 지표 중 하나인 게시물 공유에서는 1190건으로 서울시(1,857건) 다음으로 가장 높았고, 페이스북 유저 활동 지수 7009점, 포스트당 평균 반응지수는 5만7369점에서도 최상위권에 랭크됐다고 8일 밝혔다.

전북도 페이스북은 팬수 대비 이용자 반응률이 2.33%로 서울시보다(1.57%) 높게 나타나는 등 SNS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소통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. 백지석 홍보기획과장은 “도정 현안과 관광, 문화, 도민들의 일상까지 다양한 주제로 SNS 사용자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 /김진성 기자



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 협약

전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8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도지사, 고광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및 전주상공회의소, (사)전북경영자총협회, 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전북지회, 군산상공회의소, 중소기업진흥공단전북지역본부, (주)에스넷 익산지점 등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‘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’ 사업 업무 협약식 행사를 가졌다.

가습기 살균제 방지책

문 대통령, 신속 입법지시

문재인 대통령은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법률안 등을 보고 받고 “특히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대분관 세종실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, 19개의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, 6건의 대통령령안, 4건의 일반안건, 2건의 보고안건, 1건의 주석안건을 심의·의결했다.

문 대통령은 “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”에 대한 부처보고 순서에서 김의숙 법제처장에게 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’을 보고받았다.

이 법률안은 살균제와 살충제를 사용하다 벌어들일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누출 피해를 막기 위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. 기존 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’에서 다루던 우려제품 안전관리 사항을 이 법률안에 옮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논의된 법적 사안들을 보강했다.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와 입법여건 변화에 따른 각 부처처의 입법수요,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 변경을 반영하는 안건이다.

/뉴시스

행사·축제 예산 어디에 썼을까?

전주시 원가회계정보 공개... 투명성 제고·알 권리 충족

전주시가 다양한 행사와 축제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, 시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기로 했다.

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집행한 행사·축제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를 이달 말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
공개 대상 사업은 전주국제영화제 등 주요 문화축제를 포함한 총 113건으로,

시는 각 행사·축제별로 사업의 주요 내용과 후원자, 순인가 등 17개 항목을 공개할 예정이며, 총원가 3억원 이상인 행사·축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통합 표시한다.

송재욱 회계과장은 “원가정보 공개가 각종 행사·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,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/인재용 기자

전북도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

사업비 283억원 확정... 올 신청량 100% 반영

전북도는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283억원, 34만톤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.

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친환경인증농가,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, 신청량의

50%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, 올해는 대부분 신청량을 100% 반영했다.

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논, 밭 등 농지 유기질 함량을 2~3%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에게 유기질 비료, 부속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.

유기질비료는 1포(20kg) 당 지방비를 포함하여 2,000원을, 부속유기질비료는 등급별로 1,400원 ~ 1,700원을 지원하며 특히, 금년 유기질비료 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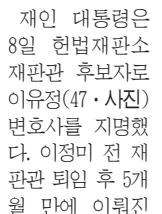
원사업은 2016년 친환경농자재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인센티브 8.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더 많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수 있게된 결과다.

토양개량제 또한 133억원을 투입하며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, 밭토양의 산도를 pH6.5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에게 3년 1주기로 규산·석회를 무상으로 공급한다.

도 관계자는 “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의 적절한 사용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이는 농업이며,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법”이라고 설명했다.

/김진성 기자

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유정 변호사 지명



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석석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. 사업연수원 23기로 서울북부지방법장

청 검사를 지냈으며,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.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를 역임 중이다.

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“이 후보자는 여성·노동·아동·인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변호사”라며 “헌법 및 성평등을 위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 여성학자로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인자”라고 소개했다. /뉴시스

“전주매일신문은
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”

구독·광고문의: 063-288-9700

www.jjmaeil.com